

2025 ~ 2029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용 안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목차

▶ 머리말

안녕, 소중한 아동에게 주는 따뜻한 약속

06 1장 안내

우리들의 든든한 약속,
아동정책기본계획

- 우리를 위한 약속,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 이 약속을 왜 만들게 되었나요?
- 우리들의 약속, 어떻게 만들었나요?

14 2장 건강과 발달

몸도 마음도 튼튼!
즐겁게 자라요.

- 언제나 든든한 우리 집과 마을
- 튼튼한 몸, 즐거운 생활
-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 [동화] 밤에도 반짝반짝, 우리 마을 이야기

24 3장 보호와 책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는 울타리

-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이 쏟아져요.
-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요.
- [동화] 드림이가 자라는 세상

34 4장 참여와 권리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꿔요.

- 아동이 환영받는 세상
-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세상
-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세상
- [동화] 소리의 목소리가 만든 반짝이는 변화

42 마치며

함께 행복한 내일을 꿈꿔요.

* 아동복지법 제3조(아동의 정의):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머리말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한 명, 한 명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라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켜야 할 약속을 담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이름은 바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입니다.

이 안내서는 나라에서 정한 10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바꾸는지 알려주기 위해,
알기 쉬운 설명과 동화로 담아낸 “행복 안내서”입니다.

정책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이 안내서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변화들을 미리 만나보고, 국가가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보호하고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그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약속, 아동정책기본계획

우리를 위한 약속,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1장

우리를 위한 약속,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Q.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나라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아동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세워두는 '종합계획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정부 부처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함께하나요?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총 13개의 정부 기관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시청, 군청, 구청에서 1년마다 약속을 확인하고, 아동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을 계속 고민합니다.



이 약속을 왜 만들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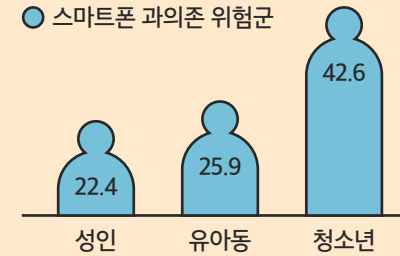
 Q. 왜 만들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은 예전보다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민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아있는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어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거나,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건강이 걱정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대별 스마트폰에 몹시 빠져 있는 비율(%)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출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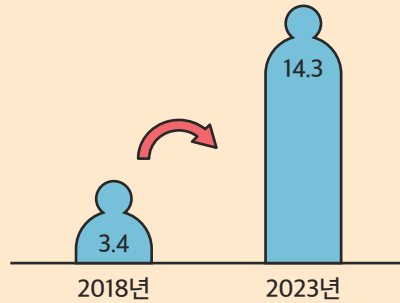
어, 스마트폰을
나만 많이 쓰는 게
아니었구나?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가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속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청소년 중 10명 중 4명은 벌써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비만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비율 변화(%)

● 몸무게 관리가 필요한 아동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2023년)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무게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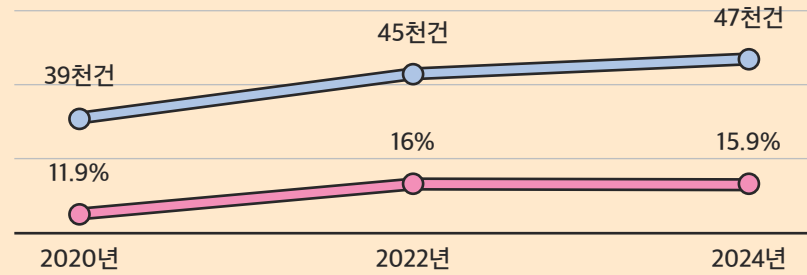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집중이나 학습에 더 도움이 필요한 아동, 시설에서 지내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모든 아동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동 학대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수(천건)와 다시 도움을 요청한 비율(%)

● 도움이 필요한 아동 수 ● 다시 도움을 요청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동 여러분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운동 시간은 적고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약속,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 소중한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동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동의 생활 속으로 찾아갔어요.

2023년 아동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아동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잠은 푹 자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물어보며 어떤 것이 필요할지 살펴 보았습니다(아동종합실태조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했어요.

2024년,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 내는 아동 NGO*, 기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아동이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 아동 NGO: 전 세계의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가난, 재난,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식량과 의료, 교육을 지원하며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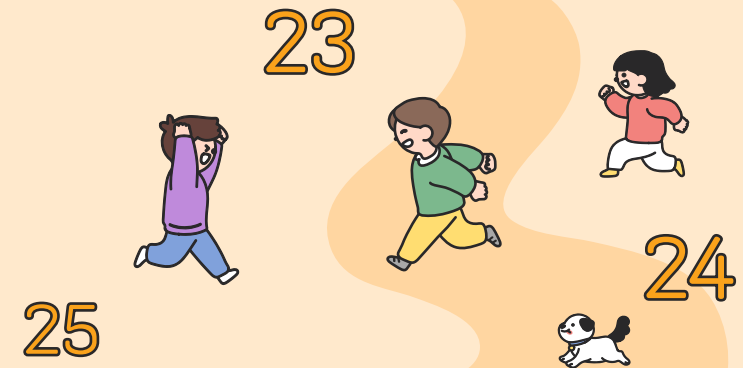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었어요.

2025년 8월 정리된 계획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동 당사자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동들이 들려준 소중한 의견을 약속에 꼭꼭 담았습니다.

국가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세상에 발표했어요.

먼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후 11월 25일에는 국무총리님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아동분야 전문가가 모이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수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3년 동안의 정성이 모여 드디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심사하고 여러 부처 간의 의견 조율과 정책 실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회의



자 그럼, 정성껏 만든 약속,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그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 행복한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2장



[건강과 발달]

몸도 마음도 튼튼! 즐겁게 자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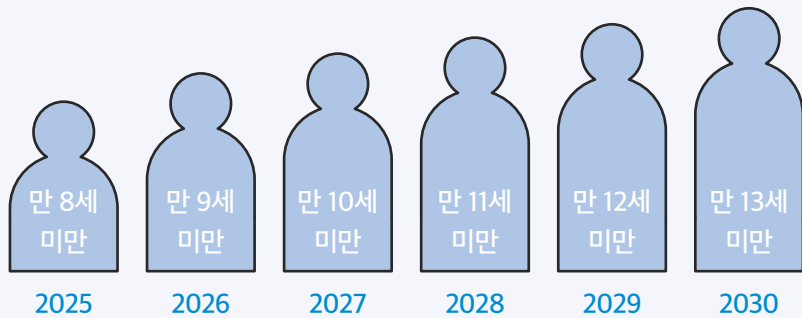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아동을 돌봐주는 곳은 더 많아져요.

아동수당이 쑥쑥!

지금은 8세 미만* 아동만 아동수당을 받지만,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점차 늘어납니다.

아동수당 확대 계획(매년 1세씩 확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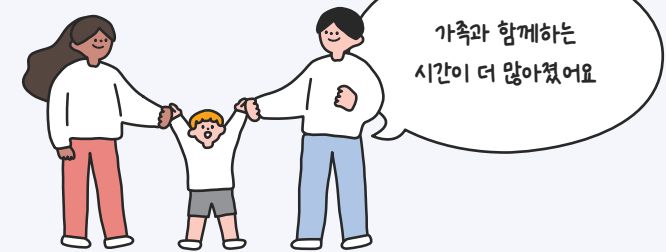


* 미만: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더 작은 숫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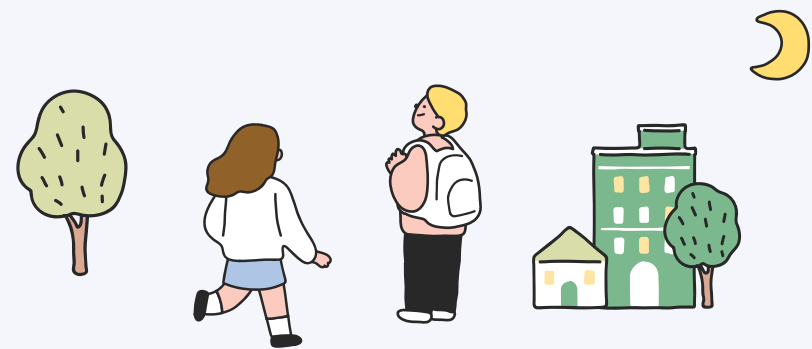
* 아동의 입원, 휴교, 방학 등 육아지원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연 1회) 도입 추진



밤에도 든든한 마을 돌봄

전국 마을돌봄시설*이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안전하게 보냅니다.

* 마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17세까지 이용), 다함께돌봄센터(6~12세 이용)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식사와 교육, 체험 활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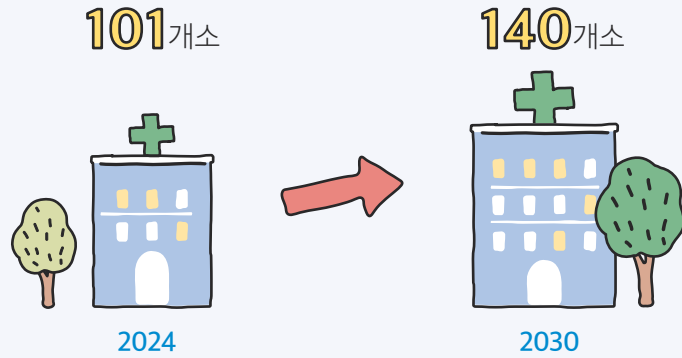


아플 때는 바로 치료받고,
운동은 더 신나게 즐겨요.

아동 치료 지원 확대

늦은 밤과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 달려가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
하여 집 근처 어디서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2024년 101개소에서 2030년까지 140개소 확대



미숙아와 태어날 때부터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병원비 지원을 확대*
하여 지원합니다.

* 2025년 최대 1천만 원 지원에서 2026년 최대 2천만 원 지원으로 확대

건강 지키는 예방접종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는 나이를 2026년 14세까지 늘리고, 지속적
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2025년 생후 6개월~13세 → 2026년 생후 6개월~14세



12~17세 여학생만 맞을 수 있던 몸에 해로운 혹은 만드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주사를 2026년부터는 남학생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확대
됩니다.

신나는 스포츠 시간

학교 체육수업의 내용을 다양하게 만들고, 지역 내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아동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 학교 체육 시설: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거나 방과 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마련된 운동장, 강당, 체육관 같은 모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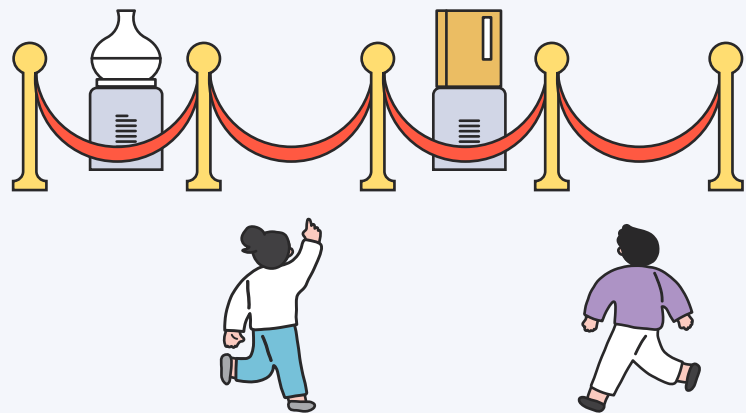
나쁜 정보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재미있는 경험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요.

똑똑한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아동들을 위한 예방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우리 동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박물관이 더 재미있어져요!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아동의 나이와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전시와 체험들로 구성하며 아동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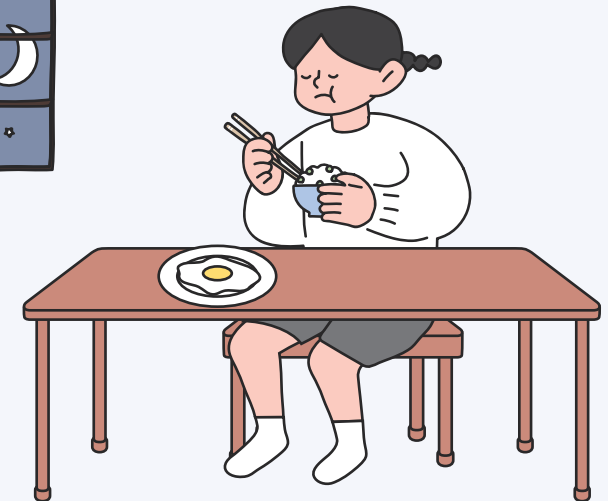


인터넷 속 든든한 방패

인터넷 세상 속 해로운 정보(성범죄물, 마약, 도박 등)를 만나지 않도록, 국가가 미리 찾아내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밤에도 반짝반짝, 우리 마을 이야기

햇님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리의 마음엔 조그만 그림자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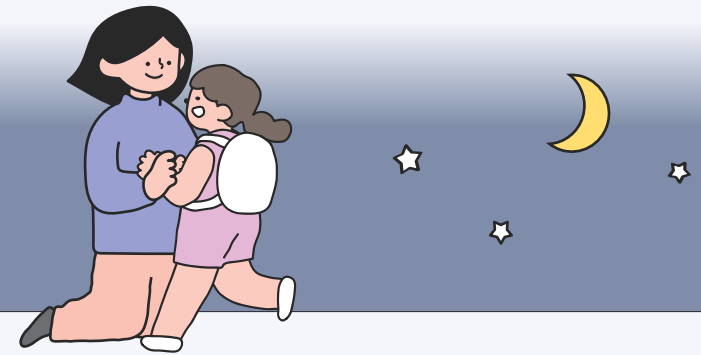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아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동네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겼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소개로 아리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다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센터에 달려갑니다.



창밖은 깜깜한 밤이지만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숙제하는 아리의 표정은 아주 밝습니다. 가끔은 센터에서 하는 미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센터 선생님과 함께 있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리의 시간도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아리의 마음은 밤에도 참 따뜻합니다.

3장



[보호와 책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는 울타리



국가책임의 입양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의 약속인 헤이그협약*을 지키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헤이그협약: 아동이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입양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많은 나라 간의 약속

가정위탁 보호 강화

친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위탁 부모님에게 병원이나 학교, 은행 같은 장소에서 보호자처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AI로 지키는 우리

인공지능(AI*)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먼저 발견하여,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찾아가겠습니다.

*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공부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지능’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드림스타트'

0세(임산부 포함)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부, 건강, 상담까지, 아동의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를 시군구 '드림스타트*'가 지원합니다.

* 드림스타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위한 지원



느린 학습자도 걱정 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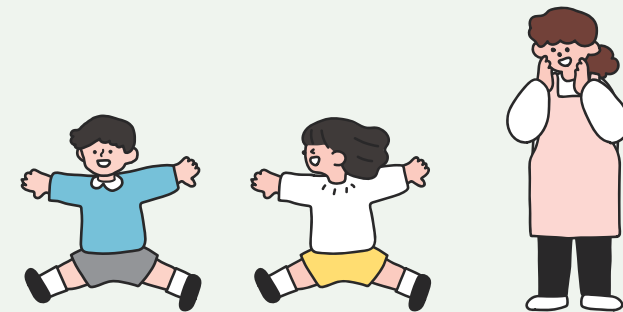
다른 친구들과 공부하는 속도가 조금 다른 '느린학습자*'를 위해 학교 안팎에서는 3단계(교실 안-학교 안-학교 밖)로 꼼꼼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 느린학습자: 배우는 속도가 조금 달라서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



양육비 걱정이 줄어들어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형,
누나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요.

꿈을 키우는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아동들이 저축을 시작하면 국가가 함께 힘을 보태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더 많은 아동이 만들 수 있게 되어, 통장을 관리하는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 만 18세 미만의 보호시설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의 보호자가 사는 곳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 가능

자립역량 강화

보호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도록 돕고, 자립*한 이후에도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

** 지역사회 선배와의 멘토링과 관련한 프로그램(사회 적응 및 진로탐색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드림이가 자라는 세상

초등학생 드림이는 학교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몸이 아픈 할머니의 밥과 약을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림이는 밤늦게까지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보느라 늘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꾸만 꾸벅꾸벅 졸고, 준비물을 빼먹기도 합니다.

드림이의 사정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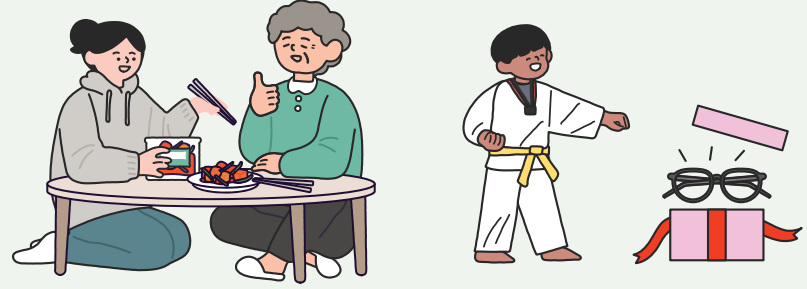
드림이는 앞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자,
할머니를 돌보는 건 선생님과
어른들이 함께 도와줄게



드림이를 위해 주민센터 담당자님, 드림스타트 선생님, 상담 선생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드림이네 집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할머니의 식사와 생활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드림이는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선생님은 드림이에게 꼭 필요한 새 안경을 사주시고, 그동안 드림이가 배우고 싶었던 태권도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드림이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한 준비물도 잘 챙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합니다. 드림이의 일상에는 이제 다양한 도움이 함께하는 든든함이 더해졌습니다.



알고 있나요?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이란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별·기관별로 나누어 지원하던 체계를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바꾼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드림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돕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4장



[참여와 권리]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약속1 **아동이 환영받는 세상**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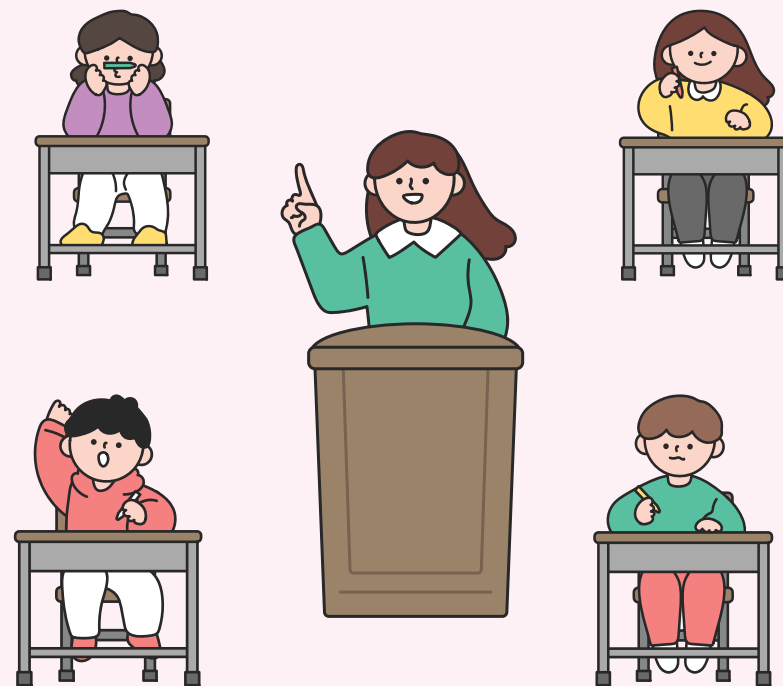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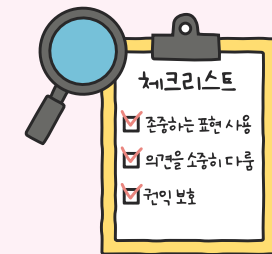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동의 권리와 정부·사회의 역할 등을 정한 '아동기본법'을 만듭니다.



아동을 이해하는 사회

아동을 향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를 살피고, 모두가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운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아동권리 선진국으로 나아가요.

혹시라도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이 직접 유엔(UN) 아동권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약속 (제3 선택의정서*)의 동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추가 약속으로, 아동의 권리가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을 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

일하는 아동을 보호해요.

일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교육, 홍보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실제 정책과 의견을 만들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규칙을 정할 때,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지역 단위 아동 참여기구 등을 통해 아동이 다양한 의견을 펼칠 기회를 더욱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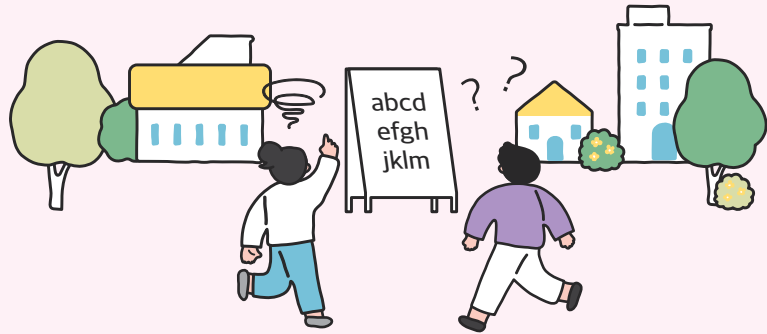


눈높이 정책 설명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길잡이'를 통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소리의 목소리가 만든 반짝이는 변화

안녕하세요? 저는 권리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소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도시의 '손님' 같았어요. 학교 근처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해도, 공원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도 어른들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셨거든요. 박물관 안내문은 너무 어려운 단어로 가득해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구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겼어요. '아동 참여 위원회' 활동 기회가 다양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내 의견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떨려서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친한 친구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직접 지역 의회 회의에 참석해 어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고를 수 있게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제안한 대로 어두웠던 골목길에 환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놀이터를 새로 만들 때도 아동 참여위원회 선생님과 우리 동네 공무원 선생님이 어떤 기구를 설치할지 저희의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박물관 안내문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친절한 단어들로 하나 둘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용기 내어 전한 의견들로 우리 동네가 변화했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에 점점 더 용기가 생겨 앞으로의 아동 참여위원회 활동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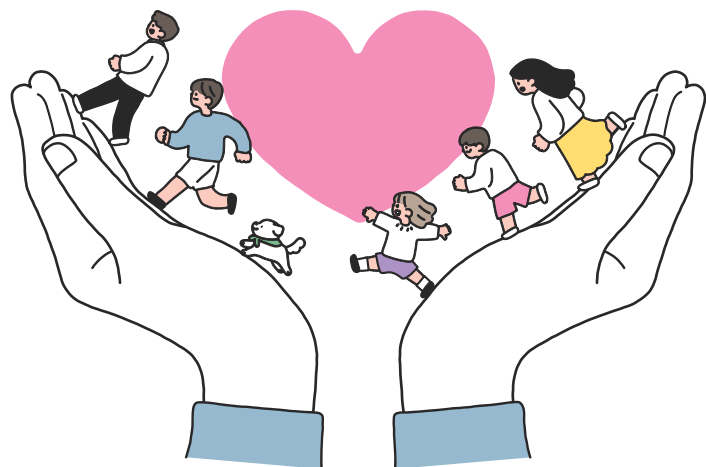
이제 제가 사는 도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우리의 권리가 법으로 지켜지는 '아이들이 진짜 주인공인 도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꿈을 마음껏 펼치며 친구들과 매일매일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마치며



지금까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잘 알아보았나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변화될 모습이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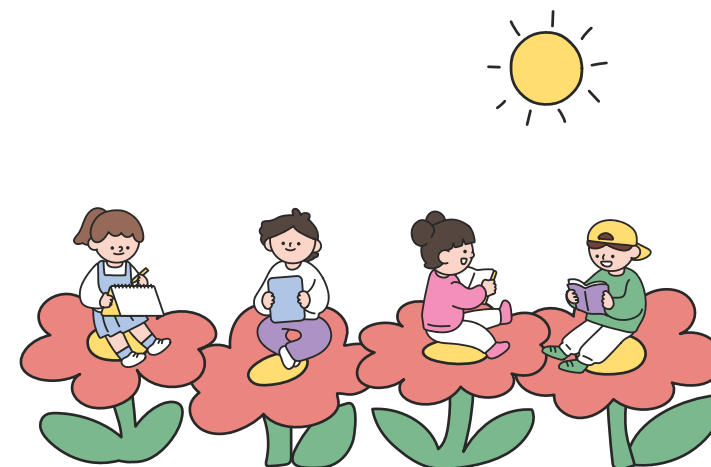
함께 행복한 내일을 꿈꿔요.



아동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 ‘아리’와 ‘드림이’ 그리고 ‘소리’가 만났던 행복한 변화들이 이제 여러분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는 늘 여러분 곁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여러분의 밝은 웃음소리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밝은 미래를 앞으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동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으로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 참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